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상호 협력 약속

무주군-국기원, 협약 체결... 우호증진 협력 내용 담아
이동섭 국기원장 "사관학교 설립에 역량 보탬 것" 강조

무주군이 9일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기원과 무주군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소재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이동섭 국기원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국기원 이종갑 전략기획실장, 김민태 경영지원본부장, 김일섭 시법단운영본부장, 강재원 사업본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무주군에서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현중 행정복지국장장과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노상은 태권도팀장 등이 동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두 기관이 서명한 양해각서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태권도 보급·진흥·홍보에 관한 상호 연계 사업 추진, ▲양 기관의 홍보 채널을 활용한 사업 및 행사 등 국내·외 홍보, ▲태권도 문화관광, 문화행사 및 홍보를 통한 상품 개발 협력, 그리고 ▲양 기관의 발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 기로 한 내용들이 담겼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로 전 세계 210개국 1억5,000만 태권도인들이 한국말로 태권도를 배우는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며 "그런 태권도가 범접할 수 없는 위상을 갖춰 우수나 가라데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서도 흔들림 없이 세계 속에 꽃피우기 위해선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태권도의 본부이자 성지인 국기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또 현실화시키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전 세계 1,100만여명의 유품·유단자를 배출하고 20여만명의 태권도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태권도 본산으로서 명성을 확고히 해오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국기원 단증을 가지고 한류 붐을 일으키는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기원의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며 "여기에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만들

고 태권도 명인, 대서법제도를 만드는 등 수많은 업적을 세웠던 태권도 9단 이동섭 원장님의 열정이 더해진 만큼 오랜 숙원 끝에 국기원과 잡은 손이 더없이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사범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주군은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임을 강조하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이자 태권도 위상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지난 2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세태연), 3월 국기원(원장 이동섭)에 이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는 이동섭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조지위원회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군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100만인 국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벌여왔으며 국기원에서도 홈페이지에 전자서명 배너를 게재해 서명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도 홍보 배너가 게재돼 전자서명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 100대 중점사업'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책자를 제작(총 6,000부)해 관내 기관들과 사회단체, 마을 구심체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 전국 대학교 태권도 학과 등지에 배포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위상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필요, ▲태권도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에 대한 요구 부각, ▲태권도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이 9일 국기원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 소재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이동섭 국기원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국기원 이종갑 전략기획실장, 김민태 경영지원본부장, 김일섭 시법단운영본부장, 강재원 사업본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무주군에서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현중 행정복지국장장과 김정미 문화체육과장, 노상은 태권도팀장 등이 동석해 의미를 더했다.

임효준, 한국 허락 없이 올림픽 못뚫다

중국 귀화 선택... 대한체육회 "국제대회 출전한 지 3년 지나야"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한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25)이 대한체육회의 허락 없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임효준이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야만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될 수 있다고 9일 전했다.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는 2019년 3월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이다.

때문에 임효준은 2022년 3월10일까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로 나설 수 없다.

베이징올림픽은 2022년 2월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규정대로라면 임효준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예외 조항은 있다.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 국제연맹(IF)이 합의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한국은 사실상 대한체육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임효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뚫 수 없다"며 "아직 임효준 측에서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2019년 선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를 당했다. 진천선수촌에서 압박 음란 훈련 중 후배 남자 선수 A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임효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뒤집히면 그때부터 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올림픽에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뉴시스

전인지, 여자골프 세계랭킹 50위로 도약

전인지(27)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50위로 올라섰다.

전인지는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파72)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드라이브 은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7언더파 28타를 기록하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